

예산심사 지연에 시간 벌었지만...

'광주형 일자리' 협상 난항

예산 예정일까지 협상 타결 총력
"연말까지 노동계 설득 이어질 듯"

현대자동차와 합작법인을 통해 완성차 공장을 설립하는 '광주형 일자리' 협상이 답보 상태다.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협상 시간을 벌었지만 입장 차이가 상당해 장기화도 전망된다.

광주시 투자협상단은 3~7일 서울 현대차 본사에서 다시 집중 협상을 할 계획이다.

당초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인 2일까지 협상을 끝내려 했지만 여야 공방으로 예산 일정이 지연되면서 협상 시한을 더 늘렸다.

협상단은 예산안 통과 예정일인 7일까지는 협상을 마무리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그러나 적정 임금, 근로시간 등 주요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예산 일정에 맞춰 협상을 타결하는 게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 예산 일정을 넘기더라도 협상은 이어갈 방침이다.



지난달 30일 오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노동조합 사무실을 방문한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일행이 허부영 현대차 노조위원장 등 노조 간부들과 면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대차의 투자자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핵심인 만큼 예산 일정을 넘겨 내년도 국비에 사업비를 반영하지 못하더라도 협상은 끝낼 수 없기 때문이다.

일단 이번 달 말까지 협상을 타결해 현대차의 투자를 끌어내면 내년도 추경에 사업비를 포함시킬 수 있다는 복안이다.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자 다른 지역에서 사업 추진을 검토하겠다는 움직임이 나오는 상황여서 더 이상 협상을 끌 수도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대차와의 입장 차이가 여전히 크고 현대차 노조의 반발도 거센 상황이라서 올해까지 협상을 끝낼 수 있을지 부정적인 전망이 많다.

협상단은 노조와도 지속적으로 만나 입장 차이를 좁히고 사업에 동참해달라고 설득할 계획이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지난달 30일 현대차 울산공장을 직접 찾아 노조를 만나 동참을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노조는 "이미 자동차 생산공장이 포화한 상태에서 광주형 일자리는 과잉투자"라며 사업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이병훈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은 "국회 예산 처리 법정 시한에 맞춰 협상을 끝내려고 노력하지만 예측하기 어렵다"며 "예산 일정을 넘기더라도 12월에는 끝내겠다"고 밝혔다.

/광주=봉채영 기자 bcy2020@metroseoul.co.kr

전남동물위생시험소 AI 차단방역 소독 강화

전라남도동물위생시험소가 겨울철새가 본격적으로 날아오고 야생조류 분변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되는 점을 감안해 철새 도래지와 닭·오리 사육 농가 차단방역 소독을 강화하고 있다.

2일 전남남도동물위생시험소에 따르면 지난 10월 1일 이후부터 야생조류 분변 검사 결과 11월 30일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저병원성 AI 항원 18건이 검출됐다.

이에 따라 전남남도동물위생시험소는 선제적 차단방역을 위해 광역방제기 2대와 소형 방제차량 4대를 활용해 전남지역 주요 철새도래지 10개소 주변도로 및 인근 농가 소독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특히 12월 말까지 철새도래지의 텃새, 철새 등 야생조류 분변 예찰검사를 실시해 촘촘한 방역 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AI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겨울철새가

찾아오는 도래지 방문을 자제해야 하나 부득이 철새도래지를 방문할 경우 야생조류 분변이나 사체와 접촉을 피하고, 방문 후에는 발판소독소에서 신발을 소독 시설에서 차량을 각각 소독해야 한다.

농가에서는 기온 하강에 따른 소독시설의 결빙·동파 방지를 위해 보온설비를 미리 정비하고 소독약품의 유효기간 및 적정 희석배율을 확인해야 한다.

정지영 전남남도동물위생시험소장은 "전남에도 겨울철새가 몰려오고 있는 만큼 닭·오리 사육농가에서는 축사 소독과 그물망 설치 등 차단방역에 힘쓰고, 가족이 집단 폐사하거나 질병 의심증상이 나타나는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해야 한다"며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가축질병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전남=봉채영 기자



KT&G 상상유니브 전남 운영사무국-광주 북구청, '사랑나눔 김장대전'

KT&G 상상유니브 전남 운영사무국은 지난 1일 광주 북구 기아챔피언스필드 주차장에서 '2018 사랑나눔 김장대전'을 개최했다. KT&G 전남본부 임직원과 대학생 봉사단 '상상발룬티어'를 비롯한 북구 자원봉사자 150여명이 참여해 축제 같은 분위기로 진행됐다. 자원봉사자들이 담근 6톤의 김치는 광주광역시 5개구(북구, 서구, 남구, 동구, 광산구) 외 전남 지역 14곳에 전달됐다. /광주=봉채영 기자

담양군 '지명천년' 역사·문화 담은 문장 완성

지명천년 기념 디자인 프로젝트

생태와 인문학이 어우러진 도시 담양에서 지명천년의 역사와 문화가 담긴 문장이 만들어졌다.

담양군은 담양 지명천년을 맞이한 올해를 기념하기 위해 천년담양 문장과 12개 읍면·문장을 개발하는 디자인 프로젝트가 완성됐다고 2일 밝혔다.

군은 지난해 지역이 가진 생태적 환경과 선비들의 누정문화를 포함한 인문학적인 가치를 중심으로 담양군의 정책을 토대로 '천년담양-생태와 인문학으로 디자인하다'라는 슬로건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문장개발에 돌입했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는 담양의 각 읍면의 문화와 특징을 담은 대표 문장을 만들어 천년의 역사를 기념코자 진행하는 사업으로 전국 최초로 각 읍면만의 문장을 개발해 의미를 더했다.

군은 실제 디자인에 앞서 각 읍면의 특징과 정체성을 담아내기 위해 읍면 역사 문화 자연 등 특성조사와 함께 5회의 군



/담양 군청

민 보고회를 통해 읍면의 대표를 만나 주민과 밀접하게 의견을 나눴다. 천년기념사업 추진위원회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문장을 완성했다.

천년담양을 나타내는 대표 문장에는 인문학의 고장임을 표현하는 책과 정자를 그려 넣고 대나무와 산천초목으로 빼어난 담양군의 자연을 녹여냈다.

읍면 문장은 각 지역이 가진 고유의 특징이 담겼다. 담양읍을 대표하는 자원인 죽녹원과 관방제림 고려의 문화재인 석당간부터 최근 도시재생사업으로 만들어진 담빛예술창고까지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

는 지역의 요소들을 골고루 담았다.

이번에 완성된 문장은 읍면별 문장을 동판으로 제작해 설치하고 읍면깃발을 제작해 축제 입장식 등에 활용해 다양한 분야에 읍면의 정체성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또한 읍면문장 인문예술 색 입히기 공모전을 통해 관내 주민과 학생뿐 아니라 전국에 문장의 의미를 홍보할 계획이다.

디자인을 맡은 김현선 디자이너는 "지역 자치 단체 문장은 형식적인 이미지로 어떤 지역을 나타내는지 알 수 없는 것이 대부분"이라며 담양의 정체성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기 위해 지역을 구성하는 실제 요소들을 이미지로 표현했다"고 말했다.

최형식 담양군수는 "담양 지명 천년을 맞아 탄생한 문장은 담양의 역사를 반추하고 지역의 정체성을 함축한 문화적 자산"이라며 "무엇보다도 디자이너만이 아닌 군민과 함께 만들어 낸 결과라는 점에서 과정 또한 빛나는 공공디자인의 수준을 높여준 프로젝트가 됐다"고 밝혔다. /전남 담양=김태수 기자 ts7080@

장성군 소농가에 공공비축미 출하운송료 지원

2018년산 공공비축미 매입이 마무리된 가운데, 장성군이 저소득 농가를 위해 건조벼 출하운송료를 지원해 호평을 받고 있다.

농업인들이 공공비축미를 출하하기 위해서는 매입이 진행되는 창고까지 벼를 옮겨야 하는데, 차량이 없는 농가는 차량을 임차하거나 돈을 주고 운송을 맡겨야 해서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이에 장성군은 일정 규모 이하의 농업인들에게 공공비축미 출하운송료를 지원키로 하고,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나 이장협의회 등에 운송료와 상·하차를 지원해 출하를 대환토록 했다.

그동안 출하운송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농가는 소농농지 5000㎡이하 농가 중 여성농업인이나 거주 3년 이상의 고령농가로 한정했으나, 올해부터는 소농농지 조건만 충족하면 지원키로 확대했다. 이



장성군이 저소득농가를 대상으로 공공비축미 출하운송료를 지원해 호평을 얻고 있다.

에 따라 올해 251명의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한편 장성군은 지난달 22일부터 11월 26일까지 공공비축미매입을 마무리했다. 올해 장성군 매입량은 산물벼 1,377톤, 건조벼 3,876톤으로 총 5,253톤이며 금년 시범사업으로 도입된 친환경벼 366.4톤도 포함돼 있다. /전남 장성=봉채영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7:29 | 해질 / 17:14

12월 3일 (월) 음력 : 10월 26일

수도권 날씨 9 ~ -15°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지역별 날씨: 연천 5/14, 동두천 7/14, 가평 4/11, 파주 7/14, 서울 9/15, 양평 7/13, 인천 11/14, 수원 11/16, 용인 11/16, 평택 10/16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장흥군 겨울철 야생동물 보호 밀렵·밀거래 특별단속

장흥군은 관내에 서식하는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내년 3월까지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특별단속기간으로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군은 겨울철 농한기에 야생동물의 불법포획 및 밀렵·밀거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유관기관 및 단체와 합동단속을 벌인다. 현재 운영 중인 야생동물보호원이 밀렵·밀거래 감시와 단속활동도 전면에 선다. /전남 장흥=위지훈 기자 jh2255@

함평군 '함평 생(生)비빔밥 어울림마당' 개최

전남 함평군(군수 이윤행)이 오는 7일 함평 5일 시장에서 함평 생(生)비빔밥 어울림 마당 축제를 개최한다. 또한 향토 산업 육성사업으로 추진 중인 함평 생(生)비빔밥 식재료센터 개장식도 이날 함께 열린다.

함평 대표 먹거리인 생고기 비빔밥을 주제로 한 이번 축제는 비빔밥 산업 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마련됐으며 함평군 개군 이래 처음 개최된다.

축제는 7일 오전 10시 모듬북 공연을 시작으로 개회식, 인기가수 초대공연, 대형 생(生)비빔밥 퍼포먼스 및 나눔행사, 품바 공연 순으로 진행된다.

축제 막바지에는 경품추첨, 기념품 배부 등을 통해 다양한 선물도 지급한다.

이윤행 함평군수는 "이번 축제는 함평 생(生)비빔밥이 대중에게 공식적으로 첫선을 보이는 자리"라며 "정성스레 준비한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전남 함평=양수년 기자 ysn6313@